

Petrobras, 시가총액 9위로 “깡충”

E&Y, 1990억달러로 37위에서 수직상승 ... 1위는 PetroChina 차지

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Petrobras는 시가총액이 세계 37위에서 9위로 수직상하면서 세계시장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.

컨설팅기업 E&Y에 따르면, Petrobras의 2009년 말 기준 시가총액은 1990억달러로 세계 9위에 해당한다. 2008년 Petrobras의 시가총액은 960억달러(37위)였다.

2009년 시가총액 세계 1-3위는 PetroChina(3531억7400만달러), ExxonMobil(3237억1700만달러), Microsoft(2706억3600만달러)가 차지했다.

이밖에 중국은행, 월마트, 중국건설은행, BHP 빌리튼, HSBC가 4-8위에 올랐으며, Google은 Petrobras에 이어 10위를 기록했다.

한편, 국제경제조사기관인 Ecomatica에 따르면, Petrobras가 2009년 2-3/4분기 연속 미주 지역에서 2번째로 많은 순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.

Petrobras의 2009년 2/4분기 순익은 39억6300만달러로 미국 시티그룹(42억7900만달러)에 이어 2위를 차지했으며, 3/4분기 순익도 41억700만달러로 집계돼 미국 ExxonMobil(47억3000만달러)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13>